

무력충돌 형태 변화 연구

김 성 우*

요 약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 안보, 영광, 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문은 1945년 이후 세계전쟁을 정리하여 전쟁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위 사실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1945년 이후에 발생한 전쟁 중 겨우 18%만이 국가 대 국가 형태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보다 국가 간의 전쟁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쟁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일어날 것이라는 현실주의자와 신 현실주의자들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던 지역은 3군데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들 전쟁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합법적인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의 전쟁형태 변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Study on the Change of Armed Conflict

Kim, Sung Woo*

ABSTRACT

Conflicts arise as a result of war in relation to government within the country, the status and role of the stat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form of war after the world war in 1945. These facts lead us to three important conclusions. First, only 18% of the wars that occurred after 1945 were national-to-national wars. Second, war will take place in all regions with certain rules in a similar fashion. The realist and neo-realist predictions were missed. Finally, the most important fact is that there was no war by the a great power.

Key words : Conflicts, national-to-national wars, neo-realist predictions, great power

접수일(2018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2018년 12월 18일)

*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1. 서론

미래전쟁의 형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 있다. 제4세대 전쟁은 우세한 정치적 의지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국제적·군사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강한 상대를 격퇴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 뿌리를 두고, 전쟁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전 세대의 전쟁과 달리 4세대 전쟁에서는 적의 군대를 격퇴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적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적국 의사결정자들의 심리를 직접 겨냥하여 공격한다[1]. 12세기 중반까지의 전쟁을 보면 둘 또는 그 이상의 잘 조직된 무장 세력들에 의해 상호 충돌이 일어났고, 대부분은 2년 내에 승패가 결정되었다. 러일전쟁, 1911년 리비아 지역내의 이태리전역, 소련과 폴란드 전쟁, 발칸전쟁, 소련의 폴란드 침공 등의 전쟁을 보면 긴 경우 2년, 어떤 것은 7개월만에 종결된 전쟁도 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의 대부분도 1년 간 지속된 전쟁이었다[2].

반면 전쟁이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것이다. 각 국의 외교 정책이 서로 마찰을 빚고, 이에 대한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최초의 위기가 된다. 그 후 작은 분쟁이 일어나다가 대부분 침략국이 공식적으로 선전 포고를 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쟁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만약 전쟁이라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다른 원인이 작용했거나 특별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45년 이후 대륙별 세계전쟁을 정리하여 전쟁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무력충돌의 근·현대사적 관점

전쟁의 본질은 2,500여 년 전 저술된 손자병법에 잘 정리되어 있다. 손자병법 제1편 시계편에서 손자는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즉,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으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3].”

1945년 이후의 몇몇 전쟁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보이기도 한다. 단순한 위기 국면에서 전쟁이 발발한 경우도 있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경우도 있다. 미리 예정된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전쟁의 전개 과정에는 선전 포고도 없고, 전쟁의 시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평화조약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제4세대 전쟁은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두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다[4].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전투가 없는 전쟁도 많았다. 소모전, 테러, 신경전 등 시민을 상대로 취하는 행동이 전투의 대부분이었다. 계급 체계가 분명하고 조직적인 군대가 활약하기보다는 정규군과 비정규군 모두가 참여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이들은 통제하기보다는 대부분 각 지역마다의 소수의 리더들이 이들을 움직였다.

20세기 후반의 어떤 전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 1945년 일본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자 베트남은 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30년 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에리트리아족은 1961년 에티오피아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에리트리아족은 1991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자국민의 반란으로 멩기스투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크고 작은 투쟁을 계속 하였다. 카슈미르족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948년부터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들도 1960년대부터 중앙 정부에 대항하여 왔다. 동티모르인들도 인도네시아에 합병되는 것에 대해 1975년부터 저항해 왔다. 얼스터에서도 1961년에서 1995년 사이 계속해서 내전이 있어 왔다. 베트남이나 에리트리아인들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어떠한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 1973년 파리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어기고 남부 베트남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했다. 이전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에 의한 새로운 권리를 얻어내고 그 댓가로 영토나 원자재, 운항권이나 국왕의 지위

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특정한 국가를 건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자 전쟁을 했다. 이런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 안보, 영광, 위상 때문이 아닌 국가 내에서의 통치, 국가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전쟁들이다.

3. 무력충돌의 형태변화 분석

아래 표들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1>은 1945년 이후 전쟁 양상을 종합한 것이다. 이 표는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1945년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쟁과는 상이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세부 사항에 관한 정밀한 수치가 아니라 표에서 나타난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표에 몇 개의 전쟁을 포함시키든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표 3.1> 무력 충돌의 형태와 지역

형 태	국가 간 무력개입	분리주의 저항	이데올로기 요인	계
아프리카	7	21	16	44
중동지역	11	12	10	33
남아시아	4	10	4	18
남동아시아	5	11	9	25
동아시아	3	1	2	6
남미대륙	1	-	8	9
중앙아메리카	4	-	10	14
발칸반도	3	2	-	5
구 소련	-	5	2	7
서부 유럽	-	2	1	3
계	38	64	62	164

※출처 : Kalevi J. Holsti,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내용을 재정리함.

이 표에서는 164개의 전쟁을 지역별로 구분하였다. 또 전쟁을 주도한 계층이나 그 목적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①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예:1962년 중국과 인도)과 살상과 무력이 동원된 외부의 개입(예: 베트남에서의 미국,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
- ② 국가와 국민과의 전쟁(예: 스리랑카의 타밀족, 나이지리아의 아이보족)
- ③ 이데올로기에 기초를 둔 국가 내부의 전쟁(예: 페루의 센드로 루미노소, 우루과이의 몬테네로스)

<표 3.2> 지역별 국가 당 무장 투쟁 횟수

지 역	국가 수	국가 간 개입	국가내부 전쟁
아프리카	43	0.16	0.86
중동	18	0.61	1.22
남아시아	7	0.57	2.00
동남아시아	11	0.45	1.82
동아시아	6	0.50	0.50
남아메리카	12	0.08	0.67
중앙아메리카/카리브	20	0.20	0.50
발칸 반도/동유럽	8	0.38	0.25
구 소련 지역	15	-	0.47
서 유럽	18	-	0.16
평균	-	0.30	0.85

※출처 : Kalevi J. Holsti,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내용을 재정리함.

<표 3.2>에서 보여주는 지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표준을 기준으로 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 아메리카 및 지중해를 나누어 표기했고, 아랍, 북아프리카는 중동지역에 포함시켰다. 또 그

리스는 발칸이 아닌 유럽에 포함시켰고, 터키는 중동에 포함시켰다[5].

전쟁의 형태를 보면, 1945년 이후 대부분은 국가 내 또는 정부에 대한 전쟁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내 공동체간의 싸움이 표에서 제시된 164회의 전쟁 중 77%를 차지한다. 외부의 개입을 여기에서처럼 국가 간의 전쟁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표기했다라면, 그 수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실제로 외부의 무력개입은 국가 내부 반란이나 분쟁의 결과였다. 소련이 헝가리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내정 간섭한 것과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등이 그 예이다. 지난 50년(1945년~1995년)동안 순수하게 국가 대 국가 형태의 전쟁은 30차례 있었고, 이는 전체의 18%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국가 간의 전쟁의 발생 빈도는 194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일개 국가에서의 연간 ‘국가 사이 또는 외부 개입으로 인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0.005밖에 안되며 18세기 유럽에서 0.019, 19세기 0.014, 1919년~1930년 0.036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6].

이전 세기의 민족과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발생한 국가 내 전쟁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 당시 이런 이유로 인한 전쟁은 매우 희박했을 것이다. 또 과거에는 분리를 위한 전쟁이 국가내부 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했다. 이들 전쟁의 목적은 국가에서 분리되고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미국, 그리스, 아일랜드 등의 독립 전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표를 지역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또 다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서유럽 지역에서는 전혀 없었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오직 한 차례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그 한차례의 전쟁조차 남아메리카 대륙 밖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지역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외 시켜도 무방한 것이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13년 미국이 멕시코에 무력으로 간섭한 것을 제외하고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전쟁이 없었다.

<표 3.3> 국내·외 개입

형 태	국내문제 (비율:%)	국외무력개입 (비율:%)
아프리카	37 (84%)	8 (22%)
중동지역	22 (66%)	9 (41%)
남아시아	14 (78%)	4 (29%)
남동아시아	20 (80%)	7 (35%)
동아시아	3 (50%)	2 (67%)
남미대륙	8 (89%)	-
중양아메리카	10 (71%)	6 (60%)
발칸반도	2 (40%)	-
구 소련	7 (100%)	2 (29%)
서부 유럽	3 (100%)	-
계	126 (77%)	38 (30%)

※출처 : Kalevi J. Holsti, The State, War, and the State of War 내용을 재정리함.

서유럽이나 남아메리카 지역과는 달리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3개의 국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종합해 볼 때, 1945년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지역은 3개 지역밖에 없다. 이외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전쟁과 국가의 무력 개입과 국가 내부 전쟁이 빈번했다. <표 3.3> 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대륙에 존재하는 나라의 숫자까지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미래전쟁 또는 4세대 전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대전쟁을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을 기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조약을 기점으로 국가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봉건국가와는 서로 다른 국가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았다[7]. 위 사실을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국제 관계와 관련된 연구나 문헌에서는 전쟁을 이론적 또는 실질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세계열강들의 활약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열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1945년 이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이 무력 개입을 했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제3세계나 공산 진영 국가 내의 분쟁과 전쟁이 1차적 원인이 된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 변화가 왔다. 더 이상 열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크로아티아, 이라크 등의 나라가 독자적으로 지구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로 변화하였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8].

신 현실주의자들이 본 지금까지의 국제 정치 이론으로는 이러한 현상과 추세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루소가 그의 사냥꾼들이 싸우지 않고 규칙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착 그들 주변의 안보 딜레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현 국제 정세를 보았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과 국가 내 전쟁의 출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전쟁이 국가 내부의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국가 간의 관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생성과 국가가 시민 사회를 어떻게 어떠한 상관관계로 볼 것인가와 국가 내에서의 정부와 사회의 연결고리에 대해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 정치학이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관련된 국가 형태학 또는 국가 생태학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내의 안보 문제와 관련지어 국제적인 영향을 모두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전쟁이 발생하는 지역보다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왜 사람들이 무장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환경과 이념이 그들을 폭동과 전쟁까지 가도록 했는가? 앞에서 분석한 전쟁들에는 각기 다른 원인이 있었

지만, 그 중 주를 이루었던 것은 정치적 공동체와 연관된 문제였다.

미래의 전쟁형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4세대 전쟁이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이름의 현대전쟁이 연구되고 있다. 테러전쟁, 사이버전쟁, 정보전쟁, 비대칭전쟁과 같은 현대전 이름도 있으나 어느 것도 현대전을 전부 대변하지 못한다. 그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전쟁, 현대전 양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서양 학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이론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2007년 프랭크 호프만(Frank G. Hoffman)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호프만은 제2차 레바논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 기존의 전쟁 양상과 다르다는데 착안하였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러한 유형의 전쟁으로 아프칸의 무자헤딘, 체첸 반군, 코소보 전쟁과 같은 유사한 전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9].

1945년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들 전쟁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합법적인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의 전쟁형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미래 전쟁 형태 변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1] 하광희, “21세기전쟁”(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27-28
- [2] Levy, 1983,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495-1974, Lexington: University
- [3] 노병천, “도해손자병법”(서울; 한원, 1990),p.26
- [4]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서울; 리북, 2008), p.338
- [5] Ekwe Ekwe, Herbert, 1990, Conflict and Intervention in Africa: Nigeria, Angola, Zaire. London: Macmillan, pp.281-282
- [6] Nietschmann, Bernard, 1987, The Third World War, Cultural Survival Quarterly 11, p.16
- [7] 지구용, “제4세대 전쟁 대응전략으로서 소프트파워 역할과 조건”(국방대 석사논문, 2014), p.4
- [8] Waltz, Stephen, 1992, Revolution and War, World Politics 44, April, p.321
- [9] 박이송, 나종남, “하이브리드 전쟁”(한국군사학논집 Vol.71 No 3, 2015), p.12

[저자 소개]



김 성 우 (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현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email : tiger@tu.ac.kr